

[**종합**]

**김대중 전 대통령
벤플리트상 수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매년 선정하는 벤플리트상 2007년 수상자로 결정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9일(현지시각)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내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연례만찬에서 벤플리트상을 수여해 왔으나 고령인 김 전 대통령의 뉴욕방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다음달 7일 서울에서는 열리는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 6주년 기념식에서 이 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성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 6월 집유 1년
의원직 상실 위기**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1·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 선고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피해가 컸고 회복을 위한 상의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진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 의원이며 훌륭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삼척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벌금형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한 것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안병엽 의원 의원직 상실
우리당 139석으로**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날 안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천758만4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0석에서 139석으로 줄었다. 다른 당 의석수는 한나라당 127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건설업체 회장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해 4월 말 미화 2만달러, 10월 3천달러를 전달받은 등 4천6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15명 중 12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재정부담·고용 창출효과 없다”… 논란 증폭될 듯

광주시의원 다수가 광주 지하철(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경실련이 최근 광주시의원 19명을 상대로 지하철 2호선 추진에 대한 입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입장 표명을 한 15명 중 대부분인 12명이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2명은 찬성을 1명은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박원 광주시의회 의장과 나종천·진선기·유재신 등 4명의 의원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명자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2호선에 대해 고용과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 이하고, 1호선의 적자 보전책도 없는 현실에서 2호선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서인봉 의원은 “재정 부담의 가중으로 건설 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월출 의원은 “건설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업시기와 재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이 광주시의 재정이거나 예산 또는 사업시기 부적절 등을 이유로 2호선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의원은 서인봉, 손재홍, 송재선, 김동식, 김성숙, 김월출, 김우진, 이상동, 이정남, 조광향, 김남일, 이명자 의원 등 12명이다.

그러나 서재원 의원은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철원 의원 역시 “재정적 여건은 어렵지만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호권 의원은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입장 결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중”이라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의 교통 여건을 봤을 때 지하철 2호선의 건설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하철건설본부로 통해 전달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문제와 관련, 무엇이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인가를 함께 고심하기 위해 광주시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면서 “광주시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엔 가는 ‘강진청자’

강진에서 생산된 비색의 삼청청자 두 점이 유엔 사무총장실에 비치된다. 이 청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특별히 주문한 것이다. 강진 고려청자 사업소 윤재진(오른쪽) 연구실장이 연구원과 함께 완성된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청자상감 운학문주병 등 삼청청자를 안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시설

수용시설 허술한 관리가 참변 불렀다

광주시 남구 한 선교원의 노숙자 수용복지시설에서 10일 새벽 2시40분께 난 불로 수용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수용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심신이 불편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고 한다. 경제력 세계 12위라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참변이 되풀이돼야 하는 지 답답하다.

이번 참변은 수용시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 줬다. 당국이나 시설 관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참변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노숙자 시설같은 보호 수용시설은 작은 화재라도 수용자들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 수용자 대부분이 폐쇄구조여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에도 화재 발생 당시 시설

관계자들이 수용자들을 즉각 대피만 시켰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다. 특히 수용자들이 술을 마시고 밤 늦게 입실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곳 수용소는 미인가 시설인데다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소방시설은 아예 갖춰지지도 않았다. 45명이나 수용된 시설이 어떻게 인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설 관계자의 허술한 관리는 물론 당국의 책임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화재는 방화든 실화든 안전 불감증과 관리소홀이 빚은 ‘인재(人災)’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차제에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 또 다른 참변을 막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온전히 보호해주는거는커녕 때죽음으로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정계개편 논란속 창당 3년 맞은 ‘우리당’

열린우리당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원내 제1당이 자 집권여당의 위상이 어울리지 않게 조촐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창당 3년만에 당의 깃발을 내리야 하는 현실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어제와 오늘을 지켜보는 심정도 착잡하다. ‘탄핵역풍’ 속에 치러진 2004년 4·15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며 ‘100년 이상 가는 정당’만 들쭉거던 호언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창당 주역까지 당 해체를 공식화하고 있는 마당에 당의 간판을 떼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정운영에 실패하면서 지지율이 급락, 10%대까지 떨어졌고 당내 예상 대선주자들의 지지도도 한나라당 후보군에 비해 너무 낮아 얼굴을 내밀기조차 어렵게 됐다.

2005년 이후 치러진 각종 재·보선에서 40전 40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광주·전남의 상황도 다를 것이 없다. 4·15총선에서 광주를 싹쓸이하고 전남도 석권했지만 그것이 전성기였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선 민주당에 밀려 참패했고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선에서도 패배했다. 일부 지역에선 기초단체장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우리 헌정사에 술한 정당들이 생기고 없어졌지만 열린우리당처럼 창당 3년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끝에 당 해체를 공식화한 주요 정당은 없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의미있는 정치실현”이라고 규정했지만 ‘실패한 정치’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오늘의 참담한 사태가 믿음을 거부하고 자만과 독선의 정치체를 해온데 따른 ‘업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고령화 심각… 문제해결 앞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10일 “복지는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투자로서의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비전 2030과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동반성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은 다시 복지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정착해 나가는 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곡성 출신인 장 장관은 “광주와 전남의 고령화 추세는 심각하다”면서 “40여 년전 내가 이 곳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마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그 연령 이하의 장년층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 부담을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남과 광주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선도지역으로 판단,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4년 전 외침이 국민에 비수로 돌아와”

정몽준, 노대통령과 ‘공조파기’ 입열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10일 4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전에 발생한 ‘공조파기’ 사건 당시의 일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서 “4년 전 현 정부의 태동기를 지켜보면서 가졌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폈다.

그는 “4년 전 ‘북한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겠다. 반미면 어쩌나’ 하던 외침이 이제 비수로 돌아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고 반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오해 살까 싶습니다

靑 “지금 집 사면 낭패… 기다려라” 발언

“청와대가 복덕방이나” 네티즌 분노

청와대가 10일 내놓은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메시지를 담은 부동산 대책 관련 글이, 부동산 값 폭등 조짐이 계속되는 흐름속에 초조해하는 집값의 서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글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 인터넷이나 포털 사이트에는 “정부 말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리다 5개월 만에 5천만원이나 올랐다” “정부 발표 반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는 비판성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글의 당초 취지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양질의 값싼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만큼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는 뜻이었지만 “지금 집을 사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

시지가 부각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불신감을 가져온 서민들을 자극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글은 이날 오전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인터넷 사이트인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됐다.

이 글은 전남 노무현 대통령 재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회의에 참석한 이백만 홍보수석 책임 아래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글의 초점은 전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에 맞춰졌고, 집값 상승에 불안해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쪽에 방향을 맞추는 쪽으로 잡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